

故신해철 집도의, 2심서 혐의 부인

강씨 변호인 “입원 지시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 검찰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 유족들 주장” 반박

고(故) 신해철씨를 수술한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의사 강세훈(47)씨가 항소심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6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심리로 열린 업무상과실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서 강씨 변호인은 “신해철씨가 검사와 투약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이 사망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씨에게 주의해야 할 사항을 충분히 설명했고 의료 과실이 없다”면서 “신씨가 입원 지시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퇴원한 것도 사망 원인이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 출석한 강씨에게 신씨 사망 원인이 된 ‘복막염’ 발병 여부에 대해 직접 물었다.

강씨는 “(2014년 10월) 20일 오후4시에

초음파 검사를 하면서 ‘복막염일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복막염에 반응할 수 있는 항생제를 처방했다”고 묻자 강씨는 “네”라고 인정했다.

이어 강씨는 “4시에 그렇게 신씨를 진료하고 6시반에 다른 수술을 하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신씨가 귀가해버렸다”고 털어놨다.

재판부가 “신씨가 귀가할 때 복막염이 아니라고 생각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당시에는 ‘복막염이다’ 또는 ‘아니다’로 단정할 수 없었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신씨가 임의로 귀가하지 않았다면 어떤 조치를 했겠냐”고 묻자 강씨는 “개복(배를 여는 것)해서 복막염에 대해 조치를 했”이라고 답변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신씨가 귀가하게 된 것은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게 신씨 유족들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이 의료법상 업무상과실치사의 경우 의사직이 그대로 유지되는데, 이 사건에서 강씨가 한 일을 생각하면 (의사직 유지가) 부당하다고도 했다”라고 전했다.

또 “1심에서는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를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한 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강씨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게 너무 가볍다”고 지적했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0일 오전 11시30분에 열린다. 강씨는 지난 2014년 10월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술을 시행한 뒤 적절

한 조치를 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씨는 수술 후 고열과 복부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며 극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같은 달 22일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지만 닷새 뒤인 27일 숨졌다.

강씨는 신씨 사망 후인 2014년 12월초 인터넷에 ‘의료계 해명자료’라는 글을 올려 고인의 과거 수술 이력 및 관련 사진들을 임의로 공개한 혐의도 받았다.

지난해 11월 1심은 “피고인이 의사로서 일련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적절히 취하지 못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적절한 진단과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하게 하고 결국 생명을 잃게되는 중대 결과가 발생했다”며 강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의료법상 업무상 비밀누설죄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무죄로 판단했다.

/뉴시스

김보름·최다빈, MBN 여성스포츠대상 2월 MVP

2017 샷포로 동계아시아게임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김보름(24·강원도청)과 최다빈(17·수리고)이 나란히 2017 MBN 여성스포츠대상 2월 최우수선수(MVP)에 뽑혔다.



여자 빙속 중장거리의 간판 김보름은 지난달 열린 샷포로 동계아시아게임 여자 스피드 스케이팅 5000m에서 금메달을 따냈고 팀추월과 3000m에서 은메달, 매스스타트 동메달을 포함해 총 4개의 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포스트 김연아’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최다빈은 같은 대회 여자 피겨 스케이팅 싱글에서 깜짝 금메달을 획득했다.

한편 2012년 제정된 MBN 여성 스포츠대상은 매월 한국 여성 스포츠를 빛낸 선수들을 월간 최우수선수(MVP)로 선정하며 12월 연말 시상식을 통해 연간 대상을 시상한다.

/김민근기자

‘U-20 월드컵’ 티켓 판매 시작

2017피파20세월드컵조직위원회는 지난 15일 조추첨식 결과에 따라 대전 및 경기 일정이 확정, 16일 오전 11시부터 일반 티켓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가격은 경기별 좌석 등급별로 7000원부터 5만원까지 다양하다.

같은 날 한 경기장에서 2경기를 볼 수 있는 ‘더블헤더’는 별도의 추가 티켓 구매 없이 1개 티켓으로 모두 관람할 수 있다. 더블헤더 경기는 조별리그 전경기와 인천에서 개최하는 16강 2경기, 수원에서 진행되는 결승전과 3~4위전이다.

식음료가 함께 제공되는 테이블석과 최고급 식사 및 대회 기념품이 제공되는 스카이프스도 판매된다.

또 장애인(1~3급), 국가유공자, 문화누리카드 소지자에 50%, 11명 이상의 단체에 30%, 4인 이상 ~ 10인 이하의 단체에겐 15%의 할인이 각각 적용된다.

이번 티켓 판매는 FIFA 주관 대회 사상 처음으로 모바일 구매가 가능하다.

16일부터 22일까지는 FIFA 파트너사인 VISA 카드를 통한 결제만 가능하고, 일반 카드 구매는 23일부터 할 수 있다.

/김민근기자

세인트루이스 오승환, 스프링캠프 복귀

오승환(35·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이 소속팀 스프링캠프에 복귀했다.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MLB.com은 16일 “2017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 한국 대표팀으로 참가했던 마무리 투수 오승환이 한국의 WBC 1라운드 탈락으로 일찍 스프링캠프에 복귀했다”고 전했다.

마이크 매시니 세인트루이스 감독은 “오승환이 17일 경기에 등판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28일 마이애미 말린스와의 경기에서 1이닝 동안 홈런 두 방을 포함해 3개의 안타를 맞고 3실점했다.

첫 시범경기에서 아쉬운 모습을 보였던 오승환은 WBC 1라운드에서는 ‘끝판왕’의 모습을 자랑했다.

1라운드 2경기에 등판한 오승환은 3%이닝을 던지면서 1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했다.

특히 삼진 6개를 잡아내며 괴력을 과시했다.

오승환이 17일 시범경기 복귀전을 치른다면 박병호(31·미네소타 트윈스)와 투타 맞대결도 가능하다.

/김민근기자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번스, “슈퍼 히어로에 지쳤다”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일원으로 영화를 찍는 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

‘캡틴 아메리카’ 크리스 에번스(36)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슈퍼히어로 연기에 대한 고충을 털어내 ‘어벤져스’ 시리즈 하차 가능성이 제기된다.

15일(현지 시각) 코믹북닷컴에 따르면 에번스는 최근 남섬 잡지 에스콰이어와의 인터뷰에서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일원으로 영화를 찍는 건 다른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벤져스 시리즈는 엄청난 촬영 일정을 가지고 긴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작업이다. 촬영 뿐만 아니라 개봉 후에는 전 세계를 돌며 프로모션 활동도 해야 한다. 이때문에 다른 프로젝트를 진행하기가 매우 힘든 상황”이라고 했다.

에번스는 현재 세 번째 ‘어벤져스’ 영화인 ‘어벤져스:인피니티 워’를 촬영 중이다.

제작비로 무려 6000억원을 투입한 이 작품은 두 편으로 나눠 개봉할 예정이어서 1편이 개봉하는 2018년까지는 에번스의 캡틴 아메리카를 볼 수 있다.

다만 그가 이 인터뷰에서 슈퍼 히어로를 연기하기 위해 무리한 운동을 해온 몸이 아픈 상황이라고 말하기도 해 ‘인피니티 워’ 이후 출연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에번스는 마블 스튜디오와 캡틴 아메리카로 여섯 작품을 찍기로 했고 ‘인피니티 워’는 딱 여섯 번째 작품이다.

그는 2011년 퍼스트 어벤져를 시작으로 ‘어벤져스’(2012)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져’(2014) ‘어벤져스:에이지 오브 울트론’(2015) ‘캡틴 아메리카: 시빌 워’(2016)에 출연했다.

현지 언론은 에번스의 하차에 무게를 더 두는 분위기다.

‘인피니티 워’에는 스무명 가까운 히어로가 등장하는데, 이 작품에 등장하는 악당 ‘타노스’가 우주 최강의 힘을 가진

캐릭터인 만큼 많은 인물이 희생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캡틴 아메리카도 자연스럽게 마블을 떠나게 될 거라는 예측이다.

한편 ‘인피니티 워’는 내년 5월4일 개봉한다.

/뉴시스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